

엄마, 나 시집갈 때도
뱅뱅은 가져갈래요

젊음의 새옷을 갈아입자 — BANG BANG

<1992. 4. 4> 1번

한겨레신문

회장: 송건호/발행: 편집: 인쇄인: 김명걸/편집위원장: 성한표 발행처: 한겨레신문사 ☎ 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116-25

The Han-Kyoreh Shinmun, 전화안내 (02) 710-0114 • FAX

군 선거부정 전면부인

최국방 “공개투표·기표확인·대리투표 없어” 지휘관 정신교육만 오해 소지...문책 안해

‘복무기간중 선거권유보 법제화’ 제의

최세창 국방장관은 3일 오후 군 부채자투표 부정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부 부대에서 공개투표·기표확인·대리투표 등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군의 부정투표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3·15면>

최 장관은 또 “일부 부대 지휘관들이 정신교육을 통해 여당후보 지지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일부 부대의 지휘관들이 정신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사제의 기표확인도 없었고, 서신검열기는 우리 군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군 부채자투표와 관련해 큰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어떤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책해야 할 만한 군 지휘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연론사·단체 등에 잇따른 부정투표 제보와 관련해 “제보내용이 입증되는 대로 작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력

동원해서라도 선거가 이뤄진다 해도 군이 불신을 면키 어렵다”며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의 경우 남미 일부 국가처럼 복무기간중에는 선거권을 유보하도록 법제화해줄 것”을 제의했다.

최 장관은 각급 지휘관들이 정치 사회적 안정이 국가안보에 중

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실시한 정신교육이 그 동기가 어떻든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명제에 어긋난 것이므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별도로 9사단 이지문 중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이 중위의 증언은 지휘관 정신교육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차로부터 들은 선거관련 풍문을 언론에 제

보한 것”이라며 “이 중위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증거가 결여돼 있고 특히 공개투표·서신검열기를 통한 기표확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퇴진 용의를 묻는 질문에 “언제든지 물러날 뜻은 있으나 지금까지는 문제없다”라며 “그러나 만일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답변했다.

북한, 빠르면 6월중 핵사찰 받아